

한국의 라틴아메리카인 Latin American People in Korea

한국: 하늘이 내린 한 폭의 그림

마리암 부디아 (Mariam Budia)

사람은 누구나 멀리 떠나있게 되면 뒤에 두고 온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비로소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자신의 매일 삶 속이나 지금 이 순간 살아 있는 것이 못된다. 잠시든 영원이든. 뭘지 모를 행복했던 과거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 그리고 그 행복을 완성하기 위한 망각의 아픔은 슬픈 기억 속으로 승화되고 만다.

내게 관심을 끄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일단 국수주의적 애국심까지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스페인 사람들이 늘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래서 국경을 벗어나서도 여전히 행복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일에 대해 얘기할까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어느 것에도 내가 한국을 알기 전까지는 그토록 나의 시간과 역사지식을 쏟아내고플 만큼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경계를 넘어서도 ‘스페인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우리만의 고유한 스페인다움은 비록 아닐지라도 —물론 나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런 자잘한 것들에 대해 내가 이토록 주목하게 될 줄은 몰랐다. 서울의 거리와 공원을 거닐면서 더욱 그랬고, 또한 한국의 최근 역사를 면밀히 읽으면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스페인과 비슷한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안달루시아의 일출

그 중의 하나는 기후다. 스페인의 태양은 여러 나라의 여행자들이 하여금 이곳의 바닷가를 찾게 해준 것은 물론 스페인의 풍습과 맛깔스러운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초대해주는 관광 유인 요소이다. 이와는 정 다른 사회정치적인 면 역시 국민 모두의 넓은 아량과 관용에 힘입어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책임 있는 이양 능력을 국내외에 과시해보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일부 이기적인 야망으로 인해 지난 수십 년 간 쌓아온 균형을 위협에 빠뜨리는 면도 없지 않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난 이런 문제에 골몰할 추호의 의지도 없었다. 신비스러운 땅, 나를 따뜻하게 맞아준 조용하고 신선한 이 나라의 철학과 문화에 흠뻑 빠져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덧 한국의 아름다운 경치와 내겐 너무도 좋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같은 신비로움은 무의식 세계에서 깨어났다. 맞다! 내겐 너무나도 특별한 사람들! 이게 내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다. 스페인 사람들이 정치적 격동기에 화해로써 위기를 극복한 모범이 되었다면, 한국인들은 지난 20세기의 모진 역경 앞에서 극복의 힘을 보여준 표본이라 하겠다.

스페인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나날이 더해가고 있다. 그렇다고 이 지역의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인식되는 것은 아니며 매력을 끄는 것도 아니다, 어찌면……. 내가 틀릴지도 모르니 ‘어찌면’이라는 부사를 쓰고 있지만, 스페인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국민이 보여준 강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대단한 나라 정도일 것이다. 그것은 이 나라에 불어 닦쳤던 격동의 사건들, 그리고 한국인들이 이 끔찍한 불행에 맞서 의연히 일어나는 모습에서 이 나라 국민의 저력을 드높이는 것이리라.

스페인 시민들이 사회적 중재를 실행해 나감에 있어 모두 한마음이 되어 평화적 이양을 이끌어온 변화와 적응의 모델을 보인 반면, 한국민이 보여준 부지런한 열정과 적극적인 도전은 더더욱 높이살만하며, 굽히지 않는 끈기와 불굴의 정신을 가진 민족으로서 칭송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모든 국민이 최상의 성취에 대한 강한 집념과 희생과 헌신, 사랑과 화해의 정신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삶 속에 깃든 광명의 빛은 이제 외국에 까지도 넘치는 감동을 각인시켜주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나는 겨울이 끝나갈 즈음에 서울에 도착했다. 손이 뽁뽁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놓은 듯 아름다운 모습은 나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생동감과 숭고한 미를 지닌 자연의 아름다움, 오랜 건축물들, 전통한복, 갖가지 요리, 그리고 이웃들의 상냥함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스페인이 태양의 나라라면 —적어도 더 추운나라나 습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그리 일컬어지곤 하지만— 한국은 빛의 나라, 하늘 위에 신들이 빛으로 역사를 써내려간 한 폭의 프레스코화 같은 나라, 궁창이 열린 이래 신들이 엮어놓은 테두리 안에 글로 수를 놓은 듯 아름다운 풍경의 나라이다. 것처럼 빛이 나를 사로잡은 예도 흔치 않았고, 그렇게 잔



한국의 산

잔하고 유쾌하고 때로는 초조하게도 만드는 평온함을 느껴본 적도 드물다. 그 초조한 듯 잔잔함이란 마치 온갖 나뭇빛 채색 사이로 하늘을 바라바며 산속을 거닐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흘린 듯 정처 없이 길을 가는 낯선 객과 부딪히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이처럼 각기 다른 표면 위에 그려놓은 수많은 색조들, 광채로 빛나는 한 폭의 그림 위에 수놓은 경이로움이 온통 활기 넘치는 이들의 열정 속에 매일 매일을 새롭게 만들어준다.

또한 빛과 자연이 어우러진 완벽한 영적 교감은 우리를 가로수 길 산책로로 안내해준다. 가을에는 가지런히 물감을 담아 놓은 팔레트를 위로 삼고, 수줍은 듯 도도하게 흘러내리는 유화물감으로 북한산을 향해 드리워진 나뭇잎들의 그림자를 배색으로 물들인다. 겨울엔 울창한 가지로 뒤덮인 산과 길마다 강렬한 태양 광선이 잎사귀에 내리 쬐어 하늘을 향해 쏘아 보낸다. 잎사귀마다 이슬이 맺혀 꽃받침에 살포시 매달린 채 자태를 늘어뜨린다. 그리고선 이내 작은 진주마냥 영롱한 광채를 발하며 가볍게 땅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은 어느새 우리로 하여금 아이 같은 평화로운 미소를 띠게 해준다. 그렇다! 이 하늘 아래 강렬하게 뿜어져 나오는 빛에서

맛보는 환희란 실로 크다. 거리의 장식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고궁과 한옥, 그리고 보일 듯 말듯 하늘에 맞닿은 웅장한 건축물들 사이에 의젓하게 우뚝 서 있는 도시, 그렇다고 이 거대한 몸체가 신들로 하여금 톡톡 위트 넘치는 비유로 그들의 언어를 아름답게 수놓는 데 방해가 되진 못한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참 에피소드도 많고,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일로 하루하루 내 마음을 움직이는 갖가지 일들이 있다. 그 가운데 몇몇 소통의 문제로 발생했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언급한다든가, 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일이 나열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의 내 인생은 세상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활기차고 강렬하고 스틸 넘치는 위의 두 가지 깊은 인상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아우르고, 넓게 펼쳐져왔으며, 나머지 것들은 자연이 수놓은 아름다운 아시아의 반도국가 그리고 사랑스러운 이곳 사람들의 매혹적이고 장엄한 기세 앞에 힘을 잃고 만다.

[신찬용 옮김]

마리암 부디아 —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